

[시티 & 피처]

U대회 실사 종합준비단 출범

광주시, 5개 자치구 등 14개 기관 구성… 의전·교통 등 7개반 편성

광주시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실사단의 광주 방문(5월 1~5일)을 앞두고 '실사 종합준비단'을 구성, 본격 가동하는 등 U대회 실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준비단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들의 입국부터 실사, 환영행사 등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U대회 실사 준비의 '컨트롤타워'다.

광주시는 "최근 U대회 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청 각 실·국장과 광주시 5개 자치구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실사 종합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단장

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은 총괄기획, 의전·행사, 학교, 언론매체, 도시환경 정비, 교통·안전, 문화체육 등 모두 7개 반으로 편성됐다.

종합지원단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들의 입국부터 실사, 환영행사 등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U대회 실사 준비의 '컨트롤타워'다.

광주시는 "최근 U대회 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청 각 실·국장과 광주시 5개 자치구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실사 종합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단장

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은 총괄기획, 의전·행사, 학교, 언론매체, 도시환경 정비, 교통·안전, 문화체육 등 모두 7개 반으로 편성됐다.

종합지원단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들의 입국부터 실사, 환영행사 등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U대회 실사 준비의 '컨트롤타워'다.

광주시는 "최근 U대회 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청 각 실·국장과 광주시 5개 자치구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실사 종합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단장

유치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민 환영단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환영 행사를 주관한다. 특히 오는 5월 2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U대회 유치기원 시민 대축제에서 'U대회 유치기원 100만인 서명'을 FISU 집행위원회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교통·안전 지원반은 FISU 집행위원회들에게 광주의 질서 정연한 모습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기 교통 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펼치고, FISU 집행위원회들에게 협력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종합지원반은 FISU 집행위원회들의 현지 실사를 '감동의 이벤트'로 이끌기 위해 오는 24일 종합기준단 및 유관기관 통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어 28일 서울에서 실사대비 프리젠테이션 및 최종점검 회의를 갖는다. 또 실사단의 방문을 4일 앞둔 오는 28일 종합 리허설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사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종합준비단이 U대회 유치의 관건이 되는 실사단 맞이 행사와 실사 업무 지원 등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빈틈 없는 준비로 U대회 유치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경명 선생 제416주기 제향 행사

총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 제416주기 제향 행사가 1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촌동 포총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고제철 종종

회장을 비롯, 기관장, 기념사업회원, 종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경명 선생은 문인출신의 병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모집해 충남 금산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삭막한 도심 도로 화사한 꽃길로

자원봉사자 600여명 작년 115만 송이 식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삭막한 광주 도심 도로가 화사한 꽃길로 변모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지난해 꽃잔디와 상록파engl이 115만송이를 시청로, 기야로, 운천로 등 10개 도로변에 심은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매주 수요일 빛고을로와 무진로에서 꽃잔디를 식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의 관문인 빛고을로, 무진로는 진분홍 꽃잔디 블결을 이루면서 시민들은 물론 광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은 또 오는 16일 동림 나들목 1만5천㎡ 도로변에 꽃잔디 75만송이를 심을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U대회 유치 실사단과 전국 소년체전 방송객들에게 깨끗하고 화사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꽃길 조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심은 꽃잔디와 상록파engl이를 관리하기 위해 비료주기와 복토작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도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무엇보다 뜻깊다"며 "향후 꽃 심기와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유통 농산물 13건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부추 등 10여 건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를 웃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농산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440건을 검사한 결과 참나물과 부추 등 농산물 13건(2.9%)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

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참나물이 3건, 상추 부추 당구가 각각 2건, 치커리, 열무잎 등이며 익혀 먹지 않는 염채류가 대부분이었다. 부적합 농산물은 구청과 도매시장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通报돼 전량 폐기되며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도매시장 반입이 1개월간 금지된다.

/윤영기자 penfoot@

중국산 쌀 누룽지 국산으로 속여 판 40대 구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5일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이모(48)씨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체결해 악취제거제 판매 수의의 일부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중국산 쌀이나 흰쌀로 만든 누룽지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과 광

주·나주·대구 등의 소매상을 통해 1만700kg을 판매해 2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광주시로부터 중국산 쌀 708포대와 중국산 90%, 태국산 10%

가 섞인 혼합미 318포대를 포대당 2만4천~2만5천원에 구입한 뒤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구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 중 7명은 김영로신

www.kimyoungro.co.kr

대학편입 일 김영에 맡겨라!

법대편입/ 회사편입/ 사법대편입/ 판사대편입/ 특악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김영
대학편입학원
법대편입/ 회사편입/ 사법대편입/ 판사대편입

국제외식산업(주)

사랑해 단장하였습니다!



■ 백화점 ■ 편의점 ■ 출장부회
■ 청탁 ■ 교회 ■ 도서관
■ 결혼식장

사랑해 단장식

100% 맞는
두길 막걸리 막걸리입니다

㈜삼연로마스

TEL. 1566-9194

스카이워터 OPEN

예약번호 0622262-2278